

◆ 북미

- Ernst&Young, 보험산업을 위협하는 10대 리스크 발표
- NAIC, 미국 보험업계 순위 발표

◆ 유럽

- AIR, 폭풍 Emma로 인한 보험손실 11.5~20억 달러로 추정
- Zurich, “글로벌산업 특화 프로그램” 착수
- Swiss Re, 2007 대재해 보험손실 유럽이 가장 큰 피해

◆ 일본

- 아사히생명, 보험금 신청 지정 대리인 제도 도입
- 일본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관련 상품 적극적 판매
- 금융청, 솔벤시마진 제도 강화 계획

◆ 중국

- 중국, 기업성 손해보험 시장 발전 필요성 제의
- 중국, 시장자율에 맡겨진 방카슈랑스
- 중국, 2위 그룹 생명보험사의 1월 실적 괄목할 만한 성장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Ernst&Young, 보험산업을 위협하는 10대 리스크 발표

- o Ernst&Young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은 각각 잠재적 기후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rnst&Young과 Oxford Analytica는 향후 5년간 글로벌 보험시장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세계 70여 명의 보험산업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10가지 위험요소와 5가지 위험요인을 선정, 발표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로는 기후변화가 선정됨.
- 10가지 위험요소는 기후변화, 주요시장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거대자연재해, 신흥시장, 규제상의 개입, 보험산업과 과학기술의 접목, 주식시장, 법률 리스크, 지정학적·거시경제적 충격 등임.
- 또한 5가지 위험요인으로 모형에 기반한 리스크관리 기법에 대한 과도한 신뢰, 평판 위협, 인재확보전쟁에서의 패배, 글로벌 규제의 이질성,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리스크의 출현 등을 꼽았음.
- o Ernst&Young의 Peter Porrino는 “보험산업환경이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은 전통적 리스크 관리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또한 3가지 중요한 위험요소인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거대자연재해 등은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보험사들은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Insurance Journal, 3/12)

□ NAIC, 미국 보험업계 순위 발표

- NAIC(미국 보험감독관협회)은 2007년 수입보험료를 토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25개사 순위를 발표함.
- 본 자료는 미국 보험시장의 종목별 집중도 및 선도회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자료는 원수 수입보험료(direct written premium)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5%가량 집계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한 순위도 발표하였으며 손해보험은 5개 종목으로 세분화 하였으나 아래에서는 비중 순으로 상위 두개의 종목만을 선정하였음.

<표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 시장점유율
1	American Intl GRP	57,090	7.63	7.63
2	Metropolitan GRP	57,039	7.62	15.25
3	Prudential of America GRP	43,291	5.78	21.03
4	ING Amer Ins Holding GRP	38,563	5.15	26.18
5	Hartford Fire&Cas GRP	35,174	4.70	30.88
6	Aegon US holding GRP	32,341	4.32	35.20
7	John Hancock GRP	31,084	4.15	39.35
8	Unitedhealth GRP	29,927	4.00	43.35
9	Principal Fin GRP	25,644	3.43	46.78
10	Lincoln Natl GRP	22,521	3.01	49.79

<표 2> 연금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 시장점유율
1	American Intl GRP	22,008	9.30	9.30
2	ING Amer Ins Holding GRP	19,994	8.45	17.16
3	Metropolitan GRP	17,767	7.51	25.27
4	Lincoln Natl GRP	16,656	7.04	32.31
5	AXA Ins GRP	16,303	6.89	39.21

<표 3> 순수생명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 시장점유율
1	American Intl GRP	30,429	18.52	18.52
2	Metropolitan GRP	12,711	7.74	26.26
3	Hartford Fire&Cas GRP	8,376	5.10	31.36
4	Northwestern Mut GRP	7,992	4.86	36.22
5	Prudential of America GRP	7,628	4.64	40.86

<표 4>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점유율	손해율
1	State Farm GRP	49,250	9.84	9.84	61.27
2	American Intl GRP	37,523	7.48	17.31	51.96
3	Zurich Ins GRP	28,557	5.69	23.01	54.94
4	Allstate Ins GRP	27,688	5.52	28.52	51.50
5	Travelers GRP	22,151	4.41	32.94	45.28
6	Liberty Mut GRP	20,235	4.03	36.97	56.80
7	Nationalwide Corp GRP	16,122	3.21	40.19	53.44
8	Berkshire Hathaway GRP	15,368	3.06	43.25	56.99
9	Progressive GRP	13,983	2.79	46.04	59.36
10	Hartford Fire&Cas GRP	11,508	2.29	48.33	48.46

<표 5> 개인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점유율	손해율
1	State Farm GRP	29,478	18.03	18.03	67.00
2	Allstate Ins GRP	18,328	11.21	29.24	53.98
3	Progressive GRP	11,747	7.18	36.42	59.86
4	Berkshire Hathaway GRP	11,731	7.17	43.60	63.21
5	Zurich Ins GRP	8,527	5.22	48.81	61.01

<표 6> 가계종합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누적점유율	손해율
1	State Farm GRP	14,057	21.75	21.75	54.54
2	Allstate Ins GRP	7,189	11.13	32.88	47.51
3	Zurich Ins GRP	4,335	6.71	39.59	57.04
4	Nationalwide Corp GRP	2,882	4.46	44.05	49.53
5	Travelers GRP	2,821	4.37	48.41	40.61

(NAIC, 3/12)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AIR, 폭풍 Emma로 인한 보험손실 11.5~20억 달러로 추정

- 세계적인 거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모델링 기술 및 분석 툴을 제공하는 AIR Worldwide사는 유럽의 폭풍 Emma로 인한 손실을 7.5~13억 유로 (11.5~20억 달러)로 추정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피해규모는 지난 5일 RMS(Risk Management Solutions)가 추정한 4.6억~11억 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지난 3월 1일 중앙유럽을 휩쓸고 간 폭풍 Emma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지에 피해를 가져왔으며, AIR사의 추정치는 체코와 발틱국가에서의 손실은 제외한 것임.
- AIR사는 동 폭풍은 폭우와 허리케인급의 강풍을 동반하여 주거용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음.
 - 고속도로, 철도, 항공운항 등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홍수경보가 내렸고, 수천가구에 전력이 끊기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또한 15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됨.
 - 독일 남부의 고지대인 Fichtelberg, Chemnit, Benediktbeuren에서 각각 시속 155km, 152km, 146km의 강도 높은 돌풍이 발생하였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Salzburg와 Vienna에서 시속 130km의 돌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Emma는 작년 1월 유럽 10개국을 강타한 거대규모의 태풍 'Kyrill'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됨.
 - 'Kyrill'의 경제적 총 손실액은 1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61억의 보험손실(Swiss Re 집계기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journal, 3/7)

□ Zurich, “글로벌 산업 전문화 프로그램” 착수

- 스위스의 Zurich Financial Services Group은 새로운 “글로벌 산업 전문화 프로그램(Global Industry Specialization Program)”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
 -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손해보험에서 현재의 지식기반과 전문적 기술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맞춤형 리스크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Zurich의 고객 및 판매채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음.
- 동 사는 많은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 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고객 및 판매채널 관리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독창성을 강조하였음.
 - 독창성 측면에서, 동 프로그램은 많은 경험에서 습득한 전문적 기술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실천 리더십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힘.
- 동 사의 손해보험부문 CEO인 John Amore는 “동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 운영 변화 노력은 고객중심형 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 좋은 예시가 될 것이며, 동 사의 산업전반에 걸친 리스크 통찰력 제공은 현재의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동 사가 지속적인 수익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글로벌 산업 전문화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3개 부문(건설, 부동산, 자동차)의 글로벌 산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음.
 - 건설부문에 대한 글로벌 산업리더로는 Terry Gray(미국인), 부동산부문에 대한 리더로는 Richard Elliott(영국인), 자동차부문에 대한 리더로는 Joerg Waelder(독일인)를 각각 임명하였음.
 - 동 사는 상위 3개 부문은 보험산업에서 7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으로 전문화된 개별 네트워크를 글로벌산업 특화 프로그램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함.

(Zurich Financial Services, 3/6)

□ Swiss Re, 2007 대재해 보험손실 유럽이 가장 큰 피해

- Swiss Re는 최근 sigma 연구 “2007 자연재해 및 인재”를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 142건의 자연재해와 193건의 인재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함.
 - 경제적 손실은 세계적으로 7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만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재물담보 보험손실액은 약 28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반면, 보험손실은 유럽이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례적으로 미국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밝힘.
 - 유럽에서는 1월 폭풍 Kyrill에 이어 지난 여름 2차례에 걸친 영국의 폭우의 주요 재해로 보험손실규모 상위 3대 재해가 유럽에서 발생함. 반면, 인적 재난으로 인한 보험손실은 약 40억 달러, 사망자 수는 6,900명으로 집계됨.
- 동 사는 장기적 지표를 관찰할 때 홍수 피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재해손실은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들이 응용하는 대부분의 홍수모델은 홍수 이상 피해가 없던 1960년~1980년의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거대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데 있어 객관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2007 보험손실 상위 5개 거대재해>

보험손실(백만\$)	발생일	재해종류	국가
6,097	2007.1.18	폭풍 Kyrill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2,488	2007.6.25	폭우, 홍수	영국
1,991	2007.7.20	폭우, 홍수	영국
1,568	2007.4.13	폭풍, 폭우, 해일, 홍수	미국
1,100	2007.10.21	캘리포니아 산불	미국

<2007 인명피해 상위 5개 거대재해>

사망·실종자(명)	발생일	재해종류	국가
4,234	2007.11.15	싸이클론 Sidr, 폭우, 홍수	방글라데시, 인도
1,500	2007.1.16	폭우, 홍수	인도, 방글라데시
678	2007.8.2	몬순강우, 홍수, 산사태	방글라데시
600	2007.8.7	폭우, 홍수	북한
600	2007.12.30	부정선거 비난 폭동	케냐

(Swiss Re, 3/11)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아사히생명, 보험금 신청 지정 대리인 제도 도입

- 아사히(朝日)생명보험은 14일 사전에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 특약’을 4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함.
- 아사히생명은 이미 대리인이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 제도를 일부 상품에 도입하고 있지만 새로운 특약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보험금의 범위 등을 큰 폭으로 확대시켰음.
- 새로운 특약으로 ‘지정 대리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등이며, 대리인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됨.
- 지금까지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3촌 이내 친척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지정 대리 청구’제도에서는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서도 가능하게 됨.
- 또한, 아사히생명이 판매중이거나 판매한 거의 모든 상품에서 대리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약의 보험료를 무료로 하고, 기계약자의 중도 부가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FujiSankei Business I, 3/15)

□ 일본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관련 상품 적극적 판매

- 일본의 금융기관은 환경 문제 및 후진국 지원 등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 관련 상품 취급을 가속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RI 관련 투자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투자대상도 환경보호 관련 투자에서 후진국 지원이나 건강 및 복지 관련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다이와증권은 세계은행 등의 지원으로 ‘국제면역 금융기구(IFIIm)’가 발행하는 「백신채권」을 10일에 판매하기 시작함.
 - 조달 자금은 공적기관을 통해 70여개 국가의 의료나 예방접종에 이용되며 다이와증권그룹의 스즈키 사장은 「백신이 있으면 하루에 6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투자를 호소하고 있음.
- 보험업계에서도 T&D보험그룹의 T&D에셋매니지먼트가 작년 9월 효율적 자원 이용 등의 「매테리얼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 투신 「세계Sustainable 펀드」를 설정하였음.
 - 아사히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팬의 경우 각각 2000년까지 환경 관련 펀드를 판매하는 등 환경을 테마로 한 펀드가 주류였음.
 - 그러나 작년 10월 일본 최대기업인 니혼(日本)생명보험이 건강식품 제조 회사 등 건강 관련 분야 주식 투자에 특화한 첫번째 사모투신 「닛세이 건강지원 펀드」를 설정하였음.
 - 니혼생명은 CSR의 일환으로 건강 관련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웰빙이나 고령화 진전을 배경으로 일반 종목에 비해 높은 투자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FujiSankei Business I, 3/13)

□ 금융청, 솔벤시마진 제도 강화 계획

- 일본 금융청은 지난 12일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솔벤시마진 비율」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표준에 맞추기 위해 내년 봄부터 강화하기로 결정함.
 - 생명보험업계에 솔벤시마진제도가 강화되면 솔벤시마진 비율이 평균적으로 현행 보다 약 4분의 3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다 높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솔벤시마진 비율은 대규모 재해 등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200%를 하회할 경우 금융청이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조기시정조치에 들어감.
 - 일본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솔벤시마진 비율은 모두 200%를 크게 상회하여 평균적으로 약 1200%이지만, 과거에는 솔벤시마진 비율이 200%를 넘던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음.
 - 이에 따라 “솔벤시마진 비율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로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금융청의 한 간부는 지적함.
- 솔벤시마진 비율 개선안은 건전성 기준인 200%를 바꾸는 대신 계산방법을 엄격하게 할 계획임.
 -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동에 대해서 현행은 「1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가격 하락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을 「20년에 한 번」으로 높이고, 보다 발생 확률의 낮은 리스크에도 대비하도록 함.
 - 개선안을 시행하면 솔벤시마진 비율이 평균 850%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미즈호증권은 전망함.
 - 한편 미국은 「50년에 한 번」의 가격 하락 리스크를 기초로 산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0년에 한 번」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유럽의 개선 방안대로 일본의 솔벤시마진 비율을 계산할 경우 솔벤시마진 비율은 평균 약 6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미즈호증권은 전망함.

(마이니치신문, 3/13)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기업성 손해보험 시장 발전 필요성 제의

- 중국 정치협의회 의원이자 평안보험(平安保險) 이사회장인 마밍저(馬明哲)는 지난 12일 정치협상 제 1차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기업성 손해보험 시장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그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주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줘야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보험, 기업재산보험, 책임보험 등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자신이 제출한 정책의제 설명서를 통해, 농업보험, 기업재산보험, 책임보험 등의 보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 보험시장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였음.
- 그는 금년 초 대형 설해를 예로 들었는데, 설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배상금은 약 10.4억 위안(그 중 손해보험이 9.75억 위안 차지)으로 이는 전체 추정 피해액 1,111억 위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유럽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재해보장 비율은 20%를 넘는다고 언급하였음.

(남방도시보, 3/12)

□ 중국, 시장자율에 맡겨진 방카슈랑스

- 방카슈랑스가 시장자율에 맡겨진 중국에서는 최근 은행창구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이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일부에서는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창구 확보가 시급해진 보험회사가 스스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나서면서 ‘제살깎기식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상품 대리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면, 보험회사는 은행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타이핑양보험(太平洋保險) 관계자는,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은행수수료 이외에도 은행직원 교육훈련, 광고마케팅 등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익 폭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함.
-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상품이 슈퍼마켓에 입점하는 것과 비슷하여, 이 때문에 상품경쟁력 이외에도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일단 입점하게 되면 그 만큼의 선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입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수료율을 경쟁사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출혈경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난 2007년 한 해동안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은 약 1,4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 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일경제신문, 3/14)

□ 중국, 2위 그룹 생명보험사의 1월 실적 괄목할 만한 성장

- 지난 3월 11일, 보감위는 각 보험회사의 1월 수입보험료 실적을 발표했는데, 은행과 연합전선을 펼친 2위 그룹 생명보험사들이 1위인 중국생명(中國人壽)의 자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감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이는 수입보험료는 생존보 합하여 총 1,0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하였음.
 -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유니버설보험, 투자연동형보험 등의 상품이 대부분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되었기 때문임.
- 1월 수입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실적 증가율 상위사를 살펴보면, 타이캉생명(太康人壽) 392%, 타이핑양생명(太保人壽) 228%, 신화생명(新華人壽) 199%, 평안생명(平安人壽) 119% 등임.
 - 이에 반해 중국생명(中國人壽)은 50%로 집계되어 2위 그룹에 머물던 회사들이 은행창구 연계판매를 통해 중국생명을 위협하는 형세가 전개되었음.
-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에 있어서도 타이핑생명(太平人壽), 민성생명(民生人壽) 등 3위 그룹에 있는 보험사들이 각각 122%, 24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빅3는 40%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추세는 2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측되면서 중국생명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으나 중국생명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도상보, 3/12)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2.29(금)	08.3.7(금)	08.3.14(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4.97	5.00	5.25	+0.25
	美 10년국채	4.03	3.51	3.53	3.44	-0.09
	英 10년국채	4.51	4.47	4.33	4.32	-0.01
	日 10년국채	1.51	1.36	1.36	1.28	-0.08
주가	韓 KOSPI	1,897.13	1,711.62	1,663.97	1,600.26	-3.83%
	韓 KOSDAQ	704.23	655.94	643.75	617.71	-4.05%
	美 DJIA	13,264.82	12,266.39	11,893.69	11,951.09	+0.48%
	美 Nasdaq	2,652.28	2,271.48	2,212.49	2,212.49	-
	英 FTSE	6,456.90	5,884.30	5,699.90	5,631.70	-1.20%
	獨 DAX	8,067.32	6,748.13	6,513.99	6,451.90	-0.95%
	佛 CAC40	5,614.08	4,790.66	4,618.96	4,592.15	-0.58%
	日 Nikkei225	15,307.78	13,603.02	12,782.80	12,100.80	-5.34%
	中 상해종합	5,261.56	4,348.54	4,300.52	3,962.67	-7.86%
	대만 가권	8,506.28	8,412.76	8,531.38	8,161.39	-4.34%
	홍콩항셍	27,812.65	24,331.67	22,501.33	22,237.11	-1.17%
환율	원/달러	938.20	937.30	949.30	980.50	+31.20
	원/100엔	833.33	889.70	924.88	974.75	+49.87
	엔/달러	112.58	105.35	102.64	100.59	-2.05
	달러/유로	1.4722	1.5187	1.5393	1.5617	+0.0224
	위안/달러	7.3041	7.1125	7.1060	7.0904	-0.0156